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항목 확대

예산 7000만원 투입 14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 확대...물놀이 사고·압사·추락사 보상

정읍시가 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강화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을 올해 시민안전보험 예산으로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5년째 가입해오고 있다.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일자를 포함해 보상 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현수막, 전단지·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보증을 가입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투자자문가 위촉 ... 기업 유치 활성화 매진

공장 인허가·등록 등 민원 서비스

남원시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전문가 2명을 자문가로 위촉했다. 남원시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과 기업유치 및 경영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 컨설팅 대표를 투자자문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자자문가 활동을 통해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등록·신고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으로 지원해 투자협약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종합상담과 국내외 기업 정보 교류 및 제공 등을 통해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4년은 남원시에 있어서 투자유치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투자자문가의 풍부한 경험과 투자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최경식(가운데) 시장이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기술 개발

거점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발전 방향 의견 수렴

남원시가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남원시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조

성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2023년 5월10일 용역에 착수해 그동안 시설하우스 및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스마트시설 수준 조사 진행 및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추진했다. 또 지난해 10월20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남원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26일)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남원시 미래농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기반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및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 등 에코(Eco)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통해 젊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고창 방문의 해' 사업 성과 공유

벚꽃축제·KBS열린음악회 등 1000만명 방문...유공자 표창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2023 고창 방문의 해' 보고회를 갖고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고창군은 지난 8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고창방문의해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관광업계 종사자 약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창군은 지난해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2차에 걸친 선포식을 시작으로 제1회 고창 벚꽃축제, KBS 열린음악회 유치,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고창 기념행사, 한여름밤의 페스타 등 연중 끊임없는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이날 성과 보고회에선 '고창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오종남, 장사익, 박근형씨 등 홍보대사와 유공자 20여명을 선발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2024년에도 지난 1년동안 이뤄온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관광산업 구축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창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많은분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장학재단,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모집

다음달 5일까지 접수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서울장학숙 28명, 전주장학숙 50명의 입사생을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월5일까지며, 2월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대상은 서울장학숙(수도권), 전주장학숙(전북권) 소재 대학교(전문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2023년 1월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창군에 주소와 두고 있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과 함께 생활정도 등 고창군장학숙 운영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에 방문하거나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세얼굴

"잘사는 농어촌 위해 신규사업 발굴 최선"

이건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에 취임한 이 건국 지사장은 "고향인 정읍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농업인과 항상 가까이에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장은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



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인출생인 이 지사장은 태인종합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했다. 새 단급사업단 조사설계부장관 전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휴먼이엔티주식회사